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입장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가기를 희망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단체 대표여러분께 특히 각별히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회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은 모임과, 자리를 하는데, 이 자리만큼 마음이 푸근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는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역사가 불운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소신과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가 식민지 역사를 지내면서 항일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 사이에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이후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한국이 큰 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국정운영 방식을 놓고 민주주의다, 독재다, 또 엄청난 갈등을 겪고 많은 사람의 희생을 치렀다. 그런 사회가 이제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쉬운 일일까, 모두들 장담하기 어려운 지나간 시대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면 모범적인 사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씩 입장이 달랐던 사람이 한 자리에 같이 앉아 미래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이 자리만 잘 되면 나라를 잘 꾸려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

따로 따로 만나도 부분적인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 자리 같이 모인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대립과 갈등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로 이해관계에 기초하는데, 그러나 이 자리는 이해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가치와 대의명분을 가지고 국가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같은 점은, 이익이 아니라 가치와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을 바치고 헌신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국민 모두가 존중해야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간 입장이 달랐더라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화해와 통합,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 자리를 뜻 깊게 생각한다.

**새로운, 화려한 비전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비롯된 갈등을 해결하는 일**

광복절이 되면 연설을 합니다. 경축사를 합니다. 모두가 미래에 대해 밝고 힘찬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비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비전은 그 동안에 나올 만큼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5.16 이후에도 나왔고, 유신시대에도 나왔고, 제5공화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화려한 비전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제일의 비전은, 역사로 비롯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로 뜻을 모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한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FTA 문제, 작통권 문제도 있고,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그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적은 문제입니다.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싸움 좀 해도 괜찮습니다. FTA 하면 좋고, 조금 늦어져

도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작통권도 당장하면 좋고 조금 늦어졌다고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과거에 파묻혀 갈등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빨라서 문제가 있더라도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발 늦어 어려움이 있다면 또 힘을 합쳐 나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앉아 머리를 맞대고 나라 장래에 대해 함께 얘기했듯이,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당이 달라 갈등하더라도 근본에 있어서 규범적 한계와 금도를 지켜 나간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경축사도 그 방향으로 썼습니다. 새로운, 화려한 비전보다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을 성사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주시고, 답변 드리겠습니다.